

중단협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텨… 최저임금 동결돼야”

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입장문
작년에만 일자리 30만개 사라져
인상시 경영·고용 악영향 불가피
최저임금 ‘지불능력’ 우선 감안을

“최저임금(결정)은 월급을 주는 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경영계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경영계는 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앞서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720원보다 23.9% 높은 1만8000원을 요구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가구생계비’를 꼽았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일과 8일에도 전원회의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6번째) 등 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통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불능력’과 노동계의 ‘가구생계비’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 격차만 2080원으로 어느 때보다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소속 14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

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단협 소속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고, 40.2%가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단협은 임금을 주는 주체들의 ‘지불능력’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하소연을 한다.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없이 시행됐고, 8월부터는 대체휴일제도 적용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시행이 예정돼있어 살얼음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돼 실망이 큰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기업인들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4%에 그쳤는데 최저임금은 연평균 7.35%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로 한국이 콜롬비아, 터키,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6위로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464원으로 1만원을 넘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액은 182만2248원, 그리고 여기에 다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인건비는 최소 월 227만원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대비 15.6%인 319만명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규모별, 업종별 편차도 큰 실정이다.

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의 대출 연장 조치를 벌써 3번이나 했고, 소상공인들은 운영자금이나 생계형자금을 빌려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같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대기업과 손잡고 창업기업 ‘지원’

SK이노·네이버클라우드·CJ ‘협업’ 기업은 교육·컨설팅·인프라 등 돕고
중기부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지원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추가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친환경), 네이버클라우드(클라우드, 인공지능), CJ(식품기술·물류·콘텐츠)와 협업해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

장을 돕는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에그프로그램’(SK이노베이션 협업), ‘이웃 프로그램’(네이버클라우드 협업), ‘씨앗 프로그램’(CJ 협업)으로 구성됐다.

에그프로그램은 SK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 교육과 컨설팅,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 자문, 투자, 국내외 세미나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배터리, 탄소포집 등 친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진행하는 이웃 프로그램은 통해선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제공, 클라우드 교육, 기술개발 1대1 컨설팅, 마케팅 세미나, 사스(SaaS·Software as

a Service) 상품화와 판로개척, 투자유치, 홍보 등을 통해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CJ와 함께하는 ‘씨앗 프로그램’에선 전문인력이 창업기업의 책임 멘토가 돼 기술 조언, 연계사업 발굴, 보유데이터 제공, 연구소 등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시험, 투자유치, 홍보 등을 통해 푸드테크, 물류,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과 대기업의 성장지원 패키지(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등)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동행세일 200억 판매고 ‘기염’

일주일 만에 기록... 매진행렬 잇따라

공영쇼핑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일주일 만에 200억원의 판매고를 넘어섰다.

중소기업 상품, 농축수산물 촉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5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방송한 ‘신화당 제과 전병’은 1시간 만에 1억1000만원(주문액 기준) 이상 판매되며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어방송으로 진행했다. 공영쇼핑은 동행세일 기간인 11일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2회 수어방송을 하고 있다.

동행세일 첫 날인 지난달 24일 선보



공영쇼핑이 동행세일 기간 진행한 신화당 제과 전병의 매진 화면. /김승호 기자

인 ‘맘스덕오리로스’도 2억2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매진됐다. 이는 직전 방송 대비 40% 가량 증가한 수치로 방송 직전 진행한 ‘돌발찬스’가 주요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기보, 50억 한도 ‘VC벤처펀드 특별보증’

벤처캐피탈 내달 2일까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기보는 정부의 복합금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만든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지원대상 벤처캐피탈을 5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VC)의 신속한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다.

최근 벤처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결성 증가와 더불어 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의 출자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펀드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출자금 용도로 전액보증 지원 상품을 만든 것이다.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벤처캐피탈은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 전액을 벤처펀드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벤처캐피탈은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MZ 위해 모바일앱 편의성 강화

홈쇼핑이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모바일 앱 편의성을 강화했다.

홈쇼핑은 간편하고 편리한 것에 익숙한 MZ세대들을 위해 모바일 앱을 방문, 처음 이용하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Login)기능과 구매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문·결제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홈쇼핑은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신규 모바일 앱 방문 고객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홈쇼핑은 회원가입 과정상의 각종 동의 및 입력력차에서 불편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했으며 가격비교 등 외부채널에서 재방문한 고객들이 로그인 등 접속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원터치 로그인’기능도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정책 바뀌어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친노’ 강금실 영입... “盧 핵심가치 실천”

▲ 광복회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
▲ 송영길 “대개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안일한 순간 문 대통령 못지킨다”



▲ 與 “카드 캐시백 사용처 늘릴 것...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도”
▲ 여성단체 “양향자 보좌관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사진 뉴시스